

KIEP

## 지역경제포커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2010년 2월 17일

ISSN 1976-0507 Vol. 4 No. 5

## 유럽통합으로 본 ASEAN 경제통합의 현 주소



김 홍 중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 (hckim@kiep.go.kr, Tel: 3460-1036)

강 유 덕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부연구위원 (ydkang@kiep.go.kr, Tel: 3460-1123)

백 유 진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연구원 (yjbaek@kiep.go.kr, Tel: 3460-1075)

■ 2010년 1월부터 ASEAN 선발 6개국은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의 심화계획에 따라 역 내 관세를 철폐하였음.

- 동 조치에 의하여 품목 수 기준으로 99.65%, 금액기준으로는 87.2%에 달하는 역내교역에 대한 관세가 철폐됨.

■ ASEAN은 1992년 AFTA 추진 계획 합의 후 단일시장과 단일생산기반을 바탕으로 EU식 경제공동체를 창설하겠다는 목표를 밝혀왔음.

- 2009년 2월 제14차 ASEAN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후아힌 선언」에서 ASEAN은 2015년까지 상품분야뿐만 아니라 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포함하여 산업 전반에 걸쳐 역내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할 것을 재확인함.

- 또한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분야의 협력 강화도 목표로 하고 있음.

■ ASEAN의 경제통합은 통합의 이유, 통합에 대한 기대 수준, 통합방식 등에서 EU 경제통합과 큰 차이를 보임.

- ASEAN은 EU와 함께 가장 성공적으로 지역협력체를 발전시켜왔으나, EU의 경제통합이 초기부터 강력한 규범과 제도적 수렴에 의한 포괄적 경제공동체를 지향한 데 반해, ASEAN은 전통적으로 '정부간 접근 방식'에 의한 만장일치의 의사결정, 내정 불간섭, 최소한의 제도화 등의 원칙으로 느슨한 지역협력체를 유지해왔음.

■ 향후 ASEAN 경제통합체가 자유무역지대를 넘어서 역내 단일시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공동통상정책을 포함한 공동정책 개발과 운용, 역내 협의기구의 활성화, 역내 소비시장 확대, 환율협력의 경험 축적 등이 선행되어야 함.

- 과도한 역외의존도, 역내 경제적 격차, 저개발과 빈곤 문제에 대한 ASEAN 자체의 문제 해결능력 개발도 아울러 가시화되어야 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1. 서론

■ 2010년 1월부터 ASEAN 6개 선발국<sup>1)</sup> 간의 역내 무역관세가 철폐되었음.

- ASEAN은 그동안 공동유효특혜관세(CEPT: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를 통하여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의 역내무역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여왔음.
- AFTA의 심화계획하에서 추진되는 동 관세철폐로 인해 품목기준으로 99.65%, 금액기준으로는 87.2%에 달하는 역내교역에 대한 관세가 철폐됨.

■ ASEAN의 이번 조치는 1992년에 합의한 AFTA 추진계획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1992년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의 추진합의 이후 ASEAN이 역내 경제통합을 위해 실효성 있는 포괄적 조치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2015년까지 단일시장, 단일생산기반을 구축하여 EU식 경제공동체를 창설할 것을 골자로 함.

■ ASEAN은 그동안 여러 차례 EU식 경제공동체를 창설하겠다는 목표를 밝혀 왔으며, 2009년 2월에는 회원국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후아힌 선언」을 채택, 2015년까지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 걸쳐 역내 교역시장의 단계적 개방을 추진하기로 함.

- ASEAN은 창설 이래 EU식 경제 통합을 지향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왔고, 2007년에는 「ASEAN 헌장(ASEAN Charter)」과 ASEAN 경제공동체 청사진(AEC Blueprint)을 통해 EU에 필적할만한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단계적 통합 방침을 발표함.

○ AEC(ASEAN Economic Community)는 EU와 같이 단일통화를 채택하고 있지는 않으나, 상품, 서비스, 투자, 숙련노동력 및 자본이동의 역내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음.

- 2009년 2월 제14차 ASEAN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후아힌 선언」은 2015년까지의 EU식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일종의 로드맵으로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분야의 협력도 강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함.

○ 2010년까지 항공, 의료, 관광 분야를 개방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물류서비스, 2015년까지 모든 산업부문의 역내 교역시장 개방을 목표로 함.

1) 1999년 11월 필리핀에서 개최된 ASEAN 비공식정상회의에서는 ASEAN 선발 6개국(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은 최종적으로 2010년까지, 후발가입국은 2015년까지 역내관세를 완전철폐하기로 결정했음.

- ASEAN의 발전과 향후 경제통합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기대와 부정적인 전망이 엇갈리고 있음.
- ASEAN 회원국들이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다양한 성격을 지닌 까닭에, ASEAN은 전통적으로 만장일치의 의사결정, 회원국 내정 불간섭, 최소한의 제도화 등의 원칙을 고수하는 느슨한 지역협력체라는 지적을 받아왔음.
-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 시 ASEAN 회원국들은 지역 차원의 협력조치가 아닌, 개별 국가적 조치에 집중했으며 이로 인해 2015년 경제공동체 실현 가능성에 불확실성이 더해짐.
- ASEAN의 경제통합에 대한 대내적 관심이 증대되는 현 시점에서 본고는 ASEAN의 발전단계를 지역통합의 기준을 제시하는 EU의 사례와 비교함으로써 ASEAN 경제통합의 현 주소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2. ASEAN의 발전과 경제통합의 특징

### 가. ASEAN의 발전과정

#### 1) ASEAN의 창설배경

-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외부환경의 변화에 공동대응하고 지역내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1967년 ASEAN 선언(방콕선언)을 통하여 ASEAN을 창설함.
- 196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된 베트남 전쟁으로 인도차이나의 공산화, 동남아시아 각국의 국내 공산계열라에 대한 문제 등이 발생하자 지역협력체 차원에서 동남아시아를 둘러싼 국제정치적 갈등에 공동 대응할 필요성이 증대되었음.
- ASEAN 창립멤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5개국)
- 브루나이(1984년), 베트남(1995년), 라오스(1997년), 미얀마(1997년), 캄보디아(1999년)가 가입하면서 10개국으로 구성된 현재의 ASEAN 완성
- 초기에는 역내외 전쟁방지, 갈등처리 메커니즘 형성이 주요 과제였으나, 외교·안보 갈등이 해소된 이후에는 역내 협력을 바탕으로 ASEAN 회원국의 경제성장을 도모함.
- 1993년 ASEAN 6개국은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의 설립을 추진하여 2008년까지 역내 공산품에 대한 관세율을 5% 이내로 인하하는 것에 합의함.

표 1. ASEAN의 발전과정

|          | 1967년               | 1984년     | 1995년     | 1997년       | 1999년       | 2002년        | 2008년          | 2010년               | 2015년              |
|----------|---------------------|-----------|-----------|-------------|-------------|--------------|----------------|---------------------|--------------------|
| 주요<br>일지 | 아세안<br>창설           | 회원국<br>확대 | 회원국<br>확대 | 회원국<br>확대   | ASEAN<br>완성 | AFTA<br>공식발효 | ASEAN 헌장<br>발효 | 관세철폐                |                    |
|          |                     |           |           |             |             |              |                | 1단계                 | 2단계                |
| 대상<br>국가 | ASEAN <sup>5)</sup> | 브루나이      | 베트남       | 라오스,<br>미얀마 | 캄보디아        | -            |                | ASEAN <sup>6)</sup> | CLMV <sup>3)</sup> |
| 회원국      | 5개국                 | 6개국       | 7개국       | 9개국         | 10개국        |              |                |                     |                    |

주: 1)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2)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브루나이.

3)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자료: ASEAN Secretariate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 2) ASEAN의 특징

■ ASEAN은 회원국간 다양성을 적절히 조정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아세안 방식(ASEAN Way)'을 통해 '균형적인 불균등(balanced disparity)<sup>2)</sup>' 상태를 유지해옴.

– ASEAN의 가장 큰 특징은 회원국간 경제규모 및 발전수준, 정부형태, 사회문화적 배경 등이 매우 상이하다는 것임.

○ ASEAN의 회원국은 1980년대 이후 수출주도형 공업화 전략을 추진한 선발 6개국(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과 1980년대 말 이후 시장경제체제로 이행 중인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총 10개국으로 구성됨.

○ 사회주의 일당제에서 대통령 중심제까지 다양한 정부형태가 공존하고, 이슬람, 가톨릭, 불교, 유교 등 여러 종교가 조화를 이루고 있음.

표 2. ASEAN 회원국의 다양성(2008년 기준)

| 회원국   | 면적(km <sup>2</sup> ) | 인구(천 명) | 정부형태     | 1인당 GDP<br>(달러) | 평균 양허<br>관세율<br>(실행관세율) | 무역<br>개방도(%) |
|-------|----------------------|---------|----------|-----------------|-------------------------|--------------|
| 브루나이  | 5,765                | 397     | 전제군주제    | 35,622          | 25.4(2.5)               | 83.8         |
| 캄보디아  | 181,035              | 14,656  | 입헌군주제    | 756             | 19.0(14.2)              | 79.2         |
| 인도네시아 | 1,860,360            | 228,523 | 대통령 중심제  | 2,236           | 37.1(6.9)               | 52.1         |
| 라오스   | 236,800              | 5,763   | 사회주의 일당제 | 917             | N/A(9.7)                | 49.7         |

2) Donald K. Emmerson(1987), "ASEAN as an International Regime,"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41(1).

표 2. 계속

| 회원국         | 면적(km <sup>2</sup> ) | 인구(천 명) | 정부형태     | 1인당 GDP<br>(달러) | 평균 양허<br>관세율<br>(실행관세율) | 무역<br>개방도(%) |
|-------------|----------------------|---------|----------|-----------------|-------------------------|--------------|
| 말레이시아       | 330,252              | 27,863  | 내각책임제    | 7,969           | 25.7(8.8)               | 152.6        |
| 미얀마         | 676,577              | 58,510  | 군사정부     | 464             | 83.3(5.6)               | 38.3         |
| 필리핀         | 300,000              | 90,457  | 대통령 중심제  | 1,843           | 25.6(6.3)               | 63.4         |
| 싱가포르        | 707                  | 4,839   | 내각책임제    | 37,629          | 10.7(0.0)               | 259.3        |
| 태국          | 513,120              | 66,482  | 입헌군주제    | 4,117           | 28.6(10.5)              | 128.8        |
| 베트남         | 331,212              | 86,160  | 사회주의 일당제 | 1,052           | 11.4(16.8)              | 155.8        |
| ASEAN<br>전체 | 4,435,827            | 583,651 | -        | 평균 2,577        |                         | 113.7        |

자료: ASEAN Secretariate; 외교통상부.

- ASEAN은 여타 지역협력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운영체제인 ‘아세안 방식(ASEAN Way)’을 고수해옴.
- ‘아세안 방식’은 국가주권에 대한 존중과 상호 내정 불간섭, 회원국의 정책에 대한 공개적 비판 금지, 비공식적이고 유연한 외교, 협의(consultation) 및 합의(consensus)에 의한 정책결정 등으로 특징지어짐.<sup>3)</sup>
- 정책결정과 관련하여 만장일치를 기대하기보다는 각 사안에 동의한 국가들만이 결정된 내용을 시행하는 ‘ASEAN minus X’<sup>4)</sup> 방식을 추구함으로써 다양하고 이질적인 회원국들 사이에서 현실적인 합의를 도출함.

## 나. ASEAN 경제통합의 특징

### 1) 무역 측면

- 전세계적인 경제적 블록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1992년 ASEAN 자유무역지대(AFTA)의 추진은 ASEAN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역내교역 규모를 확대하는 계기가 됨.
- 식민지 시대 이후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국제무역구조가 재편된 상황에서 지역주의 태동에 따른 NAFTA의 등장과 EU의 역내 단일시장 완성, 중국의 부상은 ASEAN의 무역 증대 및 투자유치에 위협을 가함.

3) Yu Ping Chan(2001), "Standing by ASEAN Crisis," *Harvard International Review*, 23(1).

4) 10개 회원국들 가운데 준비가 된 국가들이 먼저 결정된 정책을 시행하는 방식임. 유럽통합의 Multi-speed Europe과 유사한 개념임.

- 이에 ASEAN 회원국들은 ASEAN의 국제적인 교섭능력을 증대시키고 해외직접투자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차지하고자 AFTA 체결에 합의함.
- 1994년 공동유효특혜관세(CEPT) 협정발효로 각 회원국의 예외품목(Highly Sensitive List, General Exception List)을 제외한 모든 역내 상품무역 관세가 0~5%로 인하되었음.
- 이후 AFTA 심화를 위해 1999년 제3차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에 따라 ASEAN 선발 6개국은 2010년 1월부터 모든 적용품목의 관세를 철폐하였고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4개국은 2015년 1월 1일부터 관세철폐를 시행할 계획임.

표 3. ASEAN 10개국의 역내 관세철폐계획(적용품목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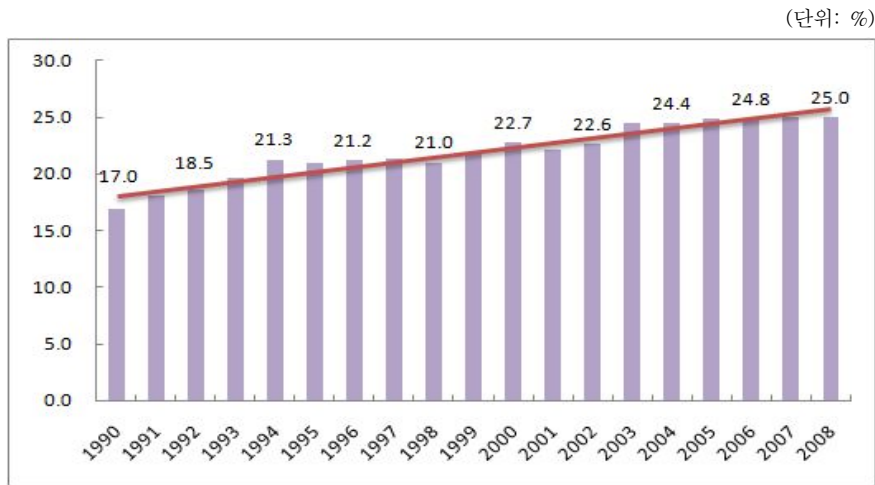
| 관세 인하·철폐 계획       |       | ASEAN 6 | ASEAN 4         |
|-------------------|-------|---------|-----------------|
| 1993년~1998년/2001년 |       | 20% 이하  |                 |
| 2003년~2010년       |       | 0~5%    |                 |
|                   | 2003년 | 5% 이하   |                 |
|                   | 2006년 |         | 베트남: 5% 이하      |
|                   | 2008년 |         | 라오스, 미얀마: 5% 이하 |
|                   | 2010년 |         | 캄보디아: 5% 이하     |
| 2010년*            |       | 철폐      |                 |
| 2015년*            |       |         | 철폐              |

주: \*는 1999년 제3차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결정됨.

자료: ASEAN Secretariate; JETRO.

- 2008년 ASEAN의 역내교역 규모는 4,827억 달러로 전체 교역액 대비 25%를 기록, 1990년대 초에 비해 6배의 성장을 기록함.
- ASEAN 자유무역지대 출범이 결정된 1992년 역내교역 비중은 724억 달러로, 전체 교역의 18.5%를 차지하였음.
- 역내교역을 저해하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점진적으로 철폐한 결과 1997~98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시에도 교역비중은 크게 감소하지 않고 20%대를 유지하였으며, 이후 점진적인 증가세를 나타냄.

그림 1. ASEAN 역내교역 비중 추이(1990~2008)



자료: Asia Regional Integration Center.

■ ASEAN의 현재 역내교역 비중은 유럽의 1950년대 수준임.

- 1958년 유럽공동체의 성립 당시 EEC 6개국의 역내교역 비중은 29% 었음.
- ASEAN의 역내교역 비중이 20%대에 머무는 것에 대해 역내 경제협력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으나, AFTA 출범 이후 역내관세가 인하되는 기간에 역내교역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 ASEAN의 경제규모가 주요 교역대상국에 비해 작은 것<sup>5)</sup> 등을 고려하면 현재의 성과를 간과할 수 없음.

■ ASEAN 각국의 역내교역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3국의 역내교역 비중 증가가 두드러짐.

-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인 인도네시아의 경우 1990년 전체 교역액 대비 9.3%로 ASEAN 국가 중 가장 낮은 역내교역 비중을 기록하였으나, 본격적인 역내 경제협력의 결과로 2008년에는 약 16%포인트 증가한 25.6%를 나타냄.
- 필리핀도 단계별 관세인하가 추진됨에 따라 역내교역 비중이 크게 증대되었으며, 특히 미얀마의 경우에는 1990년대 후반 서방사회의 경제제재 영향으로 ASEAN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크게 증가함.

5) 김완중(2009), 『ASEAN 역내경제협력의 효과 분석: 역내교역을 중심으로』, p. 11.

표 4. ASEAN 회원국의 역내교역 비중

(단위: %)

|       | 1990년 | 1995년 | 2000년 | 2005년 | 2008년 |
|-------|-------|-------|-------|-------|-------|
| 싱가포르  | 19.5  | 26.2  | 26.0  | 28.9  | 27.8  |
| 인도네시아 | 9.3   | 14.5  | 18.2  | 22.9  | 25.6  |
| 말레이시아 | 24.3  | 22.3  | 25.4  | 25.5  | 25.2  |
| 태국    | 12.6  | 15.0  | 18.1  | 20.1  | 19.8  |
| 필리핀   | 9.3   | 11.7  | 15.6  | 18.1  | 20.4  |
| 브루나이  | 27.5  | 35.3  | 33.9  | 34.0  | 33.4  |
| 캄보디아  | 56.6  | 73.6  | 24.8  | 16.8  | 41.0  |
| 라오스   | 63.2  | 55.7  | 65.0  | 65.2  | 67.0  |
| 미얀마   | 26.9  | 39.1  | 35.8  | 51.0  | 54.6  |
| 베트남   | 16.6  | 25.0  | 23.5  | 21.8  | 20.8  |
| ASEAN | 17.0  | 21.0  | 22.7  | 24.9  | 25.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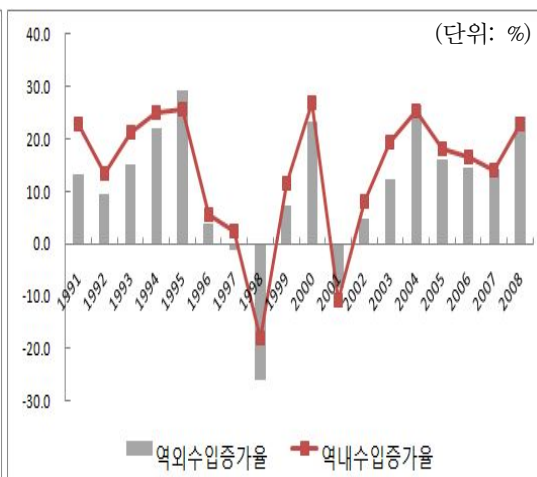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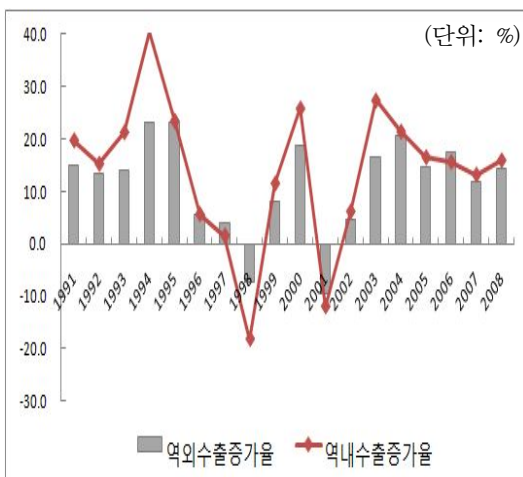
자료: Asia Regional Integration Center.

■ AFTA 체결 직후 ASEAN의 역내 수출입 증가율은 역외 수출입 증가율을 상회하였으나 초기 관세 인하 효과가 소진되면서 역내외 수출입 증가율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냄.<sup>6)</sup>

– CEPT가 발효되어 실질적인 관세인하가 시행된 1994년 역내 수출증가율은 40.3%를 기록하여 23%대의 역외 수출증가율을 크게 앞섰고, 역내 수입증가율 역시 역외 수입증가율을 상회하였음.

그림 2. 역내외 수출증가율(1991~2008년)

그림 3. 역내외 수입증가율(1991~2008년)



자료: Asia Regional Integration Center.

– 1998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로 ASEAN의 대내외적 경제상황이 악화되었을 당시 ASEAN의 역내외 수출입 증가율은 모두 크게 감소하였으나, 수출의 경우 역내 증가율이 역외 증가율에 비해

6) 이와 관련하여 김완중(2009)은 multilateral resistance를 고려한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AFTA 출범 이후 ASEAN의 다양한 역내 경제협력의 역내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였음.

더 큰 폭으로 줄었고, 수입의 경우에는 역외 증가율이 역내 증가율에 비해 더 큰 하락세를 기록하였음.

- ASEAN 6개국이 0~5%대로 관세를 인하한 2003년 역내 수출입 증가율은 다시 한 번 역외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였으나, 이후 관세인하 효과가 거의 사라지면서 역내외간 수출 및 수입 증가율이 함께 변동하는 양상을 나타냄.

## 2) 통화 측면

- ASEAN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기금(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일명 아시아공동펀드를 통해 통화교환협정 방식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통화협력에 참여함.
- 지난 1998년 외환위기 극복방안으로 동아시아 금융시장 안정화와 역내 외환위기 예방을 위해 제시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는 제한적인 역할만 담당하였다는 비판을 받아옴.
  - 개별적인 양자간 통화스와프 체제인 기존 CMI의 경우 지원 여부를 개별 국가가 결정하므로 해당국이 지원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동아시아 외환위기 발생 10년 후 세계경제위기를 다시 겪게 된 ASEAN 10개국 및 한국, 중국, 일본은 기존 CMI의 한계를 극복하는 다자간 스와프체제 형성에 합의함.
- 2010년 3월 발효되는 아시아공동펀드의 총 스와프 규모는 1,200억 달러로 이 중 ASEAN은 20%인 240억 달러를 분담하고 위기 시에는 631억 달러를 인출할 수 있게 됨.
- ASEAN 역내 단일통화에 대한 논의는 2000년대 이전부터 진행되어왔으나 통화협력의 필요성을 형식적인 수준에서 제시한 것일 뿐, 단일통화 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ASEAN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의지는 찾아보기 어려움.
- 2015년까지 아세안경제공동체(AEC)를 건설한다는 목표하에 발표된 AEC 청사진(AEC Blueprint)에서도 역내 단일통화에 대한 내용은 거론되지 않았음.
- 2009년 10월에 개최된 제15차 확대 ASEAN 정상회담에서 일본과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 차원의 단일통화 도입 의지를 표출하였으나, 최근 ASEAN 회원국이 동남아 역내 단일통화에 대해 직접 논의한 경우는 없었음.

## 다. ASEAN 경제통합의 부상 원인

### ■ 유럽의 경제통합에 비해 ASEAN의 경제통합은 최근에야 부각되기 시작함.

- EU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경제통합이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과정 속에서 통화공동체의 완성(1999년)까지 40여 년의 시간이 걸린 데 비해, ASEAN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통합논의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슈로 부각됨.
- 유럽의 순차적인 경제통합에 비해 ASEAN에서의 경제통합은 FTA를 매개로 한 단일시장의 형성과 통화협력에 대한 논의가 동시에 진행됨.
- EU의 경제통합 순서: FTA+관세동맹(1960년대) → 공동시장의 완성(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 통화공동체의 완성(1990년대 후반)

### ■ FTA를 통한 단일시장의 추구는 ASEAN의 내부적·외부적 환경의 변화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산업화과정에서 중요성이 부각되었던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ASEAN을 하나의 단일 생산기지로 묶을 필요성이 강해짐.
- 중국의 급격한 부상으로 인해 중국으로 투자전환이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ASEAN 역내교역의 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인 시장의 확장 효과를 실현, 투자 매력도를 높여야 하는 필요성이 증대함.
- 전세계적인 FTA 움직임에 편승하여 ASEAN 국가들 간의 역내교역 자유화를 한층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함.

### ■ ASEAN 국가들 간의 통화협력의 필요성은 1997~98년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증대하였으며 ASEAN+3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짐.

- 대규모의 환율변동을 초래하는 금융위기에 대해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 막기 힘들며, 전염효과(contagion effect)를 고려할 때 지역적 차원의 공동대응과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자각이 대두함.
- 역내 교역 및 투자가 활성화되고 역내 산업간 연계성이 증대됨에 따라 거래 및 외환관리 비용을 절감하여 효율성 및 안정성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짐.
- 구제금융 시 IMF가 제시하는 거시경제 운영조건에 대한 반감과 IMF의 한정된 재원규모로는 지역차원의 금융위기를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아시아통화기금(AMF)의 설립과 같은 지역 내 통화협력체제 구축에 대한 논의가 부각됨.

### 3. 유럽의 통합수준에 비춰본 ASEAN의 경제통합

#### 가. 무역

-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는 1957년 로마조약을 통해 설립되어 1968년 관세동맹을 완성함.
- EEC가 출범한 1958년 당시 전통적으로 제조업 분야가 강했던 독일의 공산품 평균관세는 6.4%였던 반면, 이탈리아의 경우 18.7%에 달하는 등 국가별로 대외관세에 편차가 심했음.
- EEC 회원국들은 딜런 라운드(1960~62년)부터 GATT 체제하의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를 통해 공동으로 협상에 임하기 시작했으며 1968년에는 10.4%의 공동관세를 채택함.

표 5. EEC 출범 초기의 회원국 및 유럽 주요국들의 대외관세 변화

| 회원국   | 1958년 | 딜런 라운드 이후 | 1968년 | 케네디 라운드 이후 |
|-------|-------|-----------|-------|------------|
| 벨기에   | 9.7   | 8.7       | 10.4  | 6.6        |
| 프랑스   | 17    | 15.3      | 10.4  | 6.6        |
| 독일    | 6.4   | 5.8       | 10.4  | 6.6        |
| 이탈리아  | 18.7  | 16.8      | 10.4  | 6.6        |
| 네덜란드  | 9.7   | 8.7       | 10.4  | 6.6        |
| 영국    | 16.5  | 14.9      | 14.9  | 9.2        |
| 덴마크   | 5.6   | 5.2       | 5.2   | 3.2        |
| 오스트리아 | 14.9  | 11.4      | 11.4  | 8.2        |
| 스웨덴   | 6.5   | 6.3       | 6.3   | 4.2        |
| 노르웨이  | 10.3  | 10.3      | 10.3  | 6.4        |

주: 딜런 라운드(Dillon Round:1960~62년), 케네디 라운드(Kennedy Round: 1964~67년)

자료: S. A. Resnick and E. M. Truman(1974), "An empirical examination of bilateral trade in Western Europ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3(4), pp. 305-335.

- EU는 전통적으로 선진국간의 경제통합으로 출범 이전 이미 높은 역내무역 비중을 나타내었다는 점에서 ASEAN의 경제통합과 큰 차이를 보임.
- EEC의 역내관세 철폐가 시작되던 1958년 EEC 6개국간의 역내교역 비중은 이미 총교역의 30%에 근접했으며, 관세동맹이 완성된 직후인 1960년대 말 역내교역 비중은 50%에 이르렀음. 서유럽 15개국(EU15) 차원에서의 역내무역 비중은 60%에 근접했음.
- ASEAN의 경우 AFTA의 설립 당시(1992년) ASEAN 회원국간의 역내교역 비중은 20%에 못 미쳤으며 현재(2008년) 25% 수준임.

- EU 국가들 간의 높은 역내무역 비중은 일찍부터 발달한 국가간의 교역활성화, 교역촉진정책, 문화적·지리적 근접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제도적인 유럽통합 움직임이 있기 전부터 무역차원의 지역화가 이루어져 있었다는 점에서 ASEAN의 경우와는 큰 차이를 보임.

표 7. EU 역내무역 비중의 변화

(단위: %)

| EU의 확대 | 1958년 | 1960년 | 1967년 | 1970년 | 1975년 | 1980년 | 1985년 | 1990년 | 1995년 | 2000년 | 2005년 |
|--------|-------|-------|-------|-------|-------|-------|-------|-------|-------|-------|-------|
| EU6    | 29    | 35    | 46    | 49    | 45    | 44    | 42    | 46    | 42    | 38    | 38    |
| EU9    |       |       | 48    | 50    | 49    | 50    | 51    | 55    | 51    | 48    | 47    |
| EU12   |       |       | 51    | 52    | 51    | 52    | 53    | 60    | 58    | 55    | 54    |
| EU15   |       |       | 57    | 58    | 56    | 57    | 59    | 66    | 63    | 60    | 59    |
| EU25   |       |       |       |       |       |       |       |       | 67    | 65    | 65    |

주: EU6: EEC의 창설 회원국(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EU9: EU6+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EU12: EU-9+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EU15: EU12+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EU25: EU15 +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자료: 저자의 계산과 Itai Agur, Ettore Dorrucci, and Francesco Paolo Mongelli(2007), "How Did European Institutional Integration and Intra-European Trade Interact?" *Économie internationale* 109, pp. 107-146.

## 나. 통화

- EU는 1999년 단일화폐인 유로화를 채택함으로써 통화공동체를 완성했으며, ECB가 개별회원국으로부터 통화주권을 이관받아 유로지역의 통화정책을 담당함.

- 1998년에 설립된 ECB는 유로지역에서의 물가안정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운영에 있어서 각국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받음. 이는 개별회원국의 통화주권이 공동체 차원의 초국가적 기구로 이관됨을 의미함.

- 통화공동체의 운영을 위하여 EU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정한 재정준칙에 의거하여 「안정 및 성장협약(SGP: Stability and Growth Pact)」을 도입함.<sup>7)</sup>

- 통화공동체에서는 단일 환율 및 단일 기준금리로 인해 한 회원국의 재정정책적 과실이 다른 나라에 전가(spillover)될 수 있으므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관리 의무를 회원국에 부과할 필요가 있음.

- EU는 관세동맹의 완성 직후인 1970년대 초부터 회원국간의 화폐 변동폭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통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데 반해, ASEAN의 통화통합 논의는 제도적 준비과정과 뒷받침이 결여되어 있음.

7) SGP는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미만 수준으로 유지하고 정부부채를 GDP 대비 60% 미만으로 유지할 것을 골자로 하여 중기적 재정목표를 균형재정 또는 흑자재정에 두도록 함.

- EU 회원국들은 1972년에는 달러화를 기준으로 각 회원국 화폐의 변동폭을 설정하는 ‘스네이크 체제(snake in the tunnel)’를 채택하였으며 1979년에는 회원국들의 통화 가중치를 반영하여 구성된 가상통화인 ECU를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2.25%의 변동을 허용하는 유럽통화제도(EMS)를 도입함.<sup>8)</sup>
- EU 경제통합의 제도적 발전은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역내 관세철폐 및 공동시장 정책으로 인해 점증하는 역내무역 비중을 감안할 때 무역통합을 이룬 후 통화 차원에서의 환율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은 정책수순이라고 볼 수 있음.<sup>9)</sup>
- ASEAN의 통화통합 논의는 EU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제도적 준비 작업이 선행되지 못하였으며, 통화통합이 아닌 통화협력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 ASEAN 회원국들의 발전수준과 경제규모를 고려, ASEAN 내부의 협력보다는 ASEAN+3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짐.

## 다. 제도적 측면

■ ASEAN과 EU는 경제통합 노력의 출발시점 및 통합형태, 기대수준 등에서 큰 차이를 보임.

- [표 8]에 정리된 바와 같이 ASEAN의 경제통합 방식은 EU의 사례와 차이를 보이며, 최근 ASEAN이 표방하는 EU식의 경제통합공동체의 창설은 현실적인 정책목표라기보다는 경제협력공동체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참고기준으로 볼 수 있음.

표 8. ASEAN과 유럽의 경제통합 비교

|              | ASEAN                                                                                                                                          | EU                                                                                                                                                                                                               |
|--------------|------------------------------------------------------------------------------------------------------------------------------------------------|------------------------------------------------------------------------------------------------------------------------------------------------------------------------------------------------------------------|
| 제도적 통합의 시작시점 | 1967년 ASEAN의 설립<br>ASEAN 차원의 FTA는 1992년 AFTA의 설립 추진으로 시작                                                                                       | 1957년 로마조약의 발효로<br>유럽경제공동체(EEC) 출범                                                                                                                                                                               |
| 지역주의         | FTA에 입각한 경제통합<br>낮은 수준의 제도화<br>개별회원국의 주권 존중에 의한<br>다정부간 접근방식, 규제적 차원의<br>지역주의(비교적 느슨한 멤버십)<br>도구적, 전략적 차원의 지역주의<br><br>→ 관세장벽의 철폐를 통한 무역자유화 추구 | 공동시장에 기반을 둔 경제통합<br>제도적 복잡성<br>초국가적 기관의 존재(e.g. EU 집행위원회)<br>공동체지향적 지역주의(선별적 멤버십)<br>(EU 공동체 차원의 강력한 상위규범-acquis communautaire-의 존재, 구조기금을 통한 재분배장치)<br><br>→ 경쟁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공동시장화를 추구(역내 비관세장벽의 철폐 및 제도적 수렴을 추구) |

8) EMS의 출범 초기에는 작은 환율조정을 보였으나 80년대 중반 이후에는 각국 간의 금리차이를 이용하여 환율을 조정하는 패턴을 띠었음. 1992년에는 파운드화에 대한 투기자본의 공격으로 영국이 EMS에서 탈퇴하였으며, 1993년에는 프랑화가 투기세력의 집중적인 공격에 직면하게 되자 변동폭을 15%로 확대하기도 하였음.

9) Bela Balassa(1961), *The Theory of Economic Integration*, Homewood, Illinois: Richard Irwin.

표 8. 계속

|                 | ASEAN                                                                     | EU                                                                                                                                                                           |
|-----------------|---------------------------------------------------------------------------|------------------------------------------------------------------------------------------------------------------------------------------------------------------------------|
| 지역화             |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지향적 개발정책,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한 산업화 추구<br><br>→ 1990년대부터 역내무역 비중이 높아짐. | 이미 제도적인 통합 전부터 높은 역내무역 비중을 유지, 선진국간의 공동체<br><br>→ 관세인하 등을 통한 역내교역 활성화는 70년대에 성숙기에 진입. 80년대 중반부터는 역내 비관세장벽의 철폐와 각국간의 규제수렴에 초점을 둠. 2005년 EU 15개국 간의 역내무역 비중은 59%, 27개국 간에는 65% |
| 지역경제차원의 거버넌스    | 지역경제 차원에서의 제도적 거버넌스는 미미함. 다국적기업들의 활동을 위한 틀 제공에 그침.                        | 실효적이고 법규에 입각한 거버넌스(예: 경쟁정책)                                                                                                                                                  |
| 경제통합의 주동력       | 다국적기업들의 활동                                                                | 제도화를 통해 구축된 EU의 관료, 다국적기업                                                                                                                                                    |
| 경제통합에 대한 정부의 역할 | 촉진자(facilitator)적 역할로 제한적임.                                               | 선도적(leading) 역할                                                                                                                                                              |
| 지역경제의 구성국가      | 선진국(싱가포르), 개도국, 최빈국                                                       | 선진국(EU15개국), 체제전환국(중·동유럽국가)                                                                                                                                                  |
| 역외교역관계          | 북미와 유럽 등 역외경제권과의 교역비중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중요함.                           | 낮은 역외교역 비중                                                                                                                                                                   |
| 무역의 성격          | 동아시아 내 선진국(일본, 한국)과의 산업간 무역, 수직적 산업내 무역                                   | 유럽국가들 간의 수평적 산업내 무역                                                                                                                                                          |
| 투자를 통한 지역화 현상   | 투자를 통한 높은 수준의 지역화, 일본, 한국, 대만 등과의 수직적 FDI망을 형성                            | 투자를 통한 높은 수준의 지역화, 선진국간의 수평적 FDI, 서유럽과 동유럽 간의 수직적 FDI                                                                                                                        |
| 통화통합            | 약한 수준의 통화협력 경향(동아시아 차원에서의 CMI를 통한 스와프 교환방식 및 CMI 다자화 노력)                  | 단일통화의 채택을 통한 통화공동체 완성                                                                                                                                                        |
| 경제통합에 대한 지원체제   | 자발적 차원의 국가별 ODA에 그치고 있음(주로 수혜국임).                                         | EU 공동체 차원의 구조기금                                                                                                                                                              |

## 4. 향후 ASEAN의 경제통합에 대한 전망

■ ASEAN의 경제통합 움직임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부각되었으며, 회원국간의 상이성, 공조에 관한 경험 부족 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음.

– ASEAN의 경제통합은 유럽통합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났던 초기단계부터의 큰 구도의 전략적 판단, 정교한 교섭과정에 대한 기획과 달리, 1980년대의 산업정책과 1990년대의 세계화, 지역주의의 대두 등 외부적 요인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ASEAN 국가들은 지역적으로 널리 흩어져 있고, 정치·경제체제가 상이하며, 문화적·역사적 배경에서도 큰 차이를 보여, 이로 인해 정치, 사회 경제 등 폭넓은 분야에서의 정책공조에 관

한 전통과 경험이 부족함.

- 유럽의 EMS와 같은 회원국간의 고정환율제도를 설정하는 데에 필요한 역내국가들 간의 응집력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통화정책의 자율성에 대한 제약을 받아들이는 정치적 결단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회원국간의 고정환율제도의 채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금융안정을 위한 통화협력 및 FTA를 통한 단일시장화의 노력에 기대를 걸 수 있음.

- 각국 간의 소득수준과 산업구조의 차이가 큰 점, 역내 경제에 대한 비대칭 충격 시 재원이전을 통한 재분배 제도가 미비한 점을 감안할 때 회원국간의 고정환율제도의 도입이나, 통화공동체의 설립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 금융안정 및 역내투자활성화를 위한 통화협력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CMI의 다자화와 아시아 채권시장 이니셔티브(ABMI)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ASEAN+3 차원에서 진행될 것임.<sup>10)</sup>

- 기존의 AFTA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가 모아진 만큼, FTA를 통한 단일시장의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으나, 각국 간의 제도적 차이와 실행역량이 문제점으로 부각될 수 있음.

■ 향후 ASEAN 경제통합체가 자유무역지대를 넘어서 역내 단일시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공동통상정책을 포함한 공동정책 개발과 운용, 역내 협의기구의 활성화, 역내 소비시장 확대, 통화협력의 경험 축적 등이 선행되어야 함.

- 역내 단일시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회원국간의 대외관세의 차이를 줄이는 한편, 대외적 통상문제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공동정책을 개발하고, 역내 비관세장벽의 철폐 및 소비시장의 확대를 통해 경쟁효과를 유발할 필요성이 있음.

- 과도한 역외의존도, 역내경제의 다양성, 저개발과 빈곤 문제에 대한 ASEAN 자체의 문제해결 능력 개발도 아울러 가시화되어야 함.

10) 1977년 ASEAN 5개국은 스와프협정을 도입했으나 규모 및 실효성에 있어서 성과가 미미했으며 도입 이후 5차례 사용되는 데 그쳤음. 스와프사용 사례(국가, 사용연도) - 인도네시아: 1979년, 말레이시아. 태국: 1980년, 필리핀: 1981년, 1992년.